

질적연구, 그 독특함에 관하여

질문 1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저는 질적연구가 양적연구와 달리 수가 아니라 언어로 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라 보고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에는 자료 수집 기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질적연구를 공부하면 할수록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에는 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에는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를 그것과 대조되는, 혹은 그것과 닮은 존재들과 비교함으로써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의 한계에서 시작되었기에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차이를 통해 질적연구 특유의 인식론적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지표의 차이입니다. 양적연구에서 연구의 최종 데이터는 등가 교환 가능한 '수'의 형태이며, 양적연구는 수 형태의 최종 데이터를 지표로 삼아 분석을 합니다. 양적연구에서 최종 데이터를 수로 변환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양적연구의 목적은 변수와 변수의 상관 혹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등가 비교가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등가 교환이 가능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데이터는 바로 숫자이지요. 이에 비해,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현상에 대해 숫자로 다 환원되지 않는(환원할 수 없는/환원하기 싫은) 삶의 경험적 자료라는 질적 지표에 근거하여 분석과 해석을 합니다. 지표의 차이는 거칠게 말하자면 결국 연구 데이터 형식의 차이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외현적 차이는 바로 연구 지표의 차이입니다. 지표의 차이가 두드러지기에 어떤 분들은 숫자를 가지고 진행한 연구는 양적연구, 기술적인(descriptive) 언어를 가지고 한 연구는 질적연구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표의 차이라는 외현적 차이는 두 접근의 인식론적 차이의 결과로 발생한 방법 차이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여러 가지 차이 중 가장 덜 중요한 차이라고 봅니다. 보다 근원적인 차이는 이러한 방법의 차이들을 발생시킨 인식론적 차이, 즉 방법론적 차이입니다. 지표의 차이에만 집중하게 되면 마치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차이가 단지 수와 글의 차이, 연구 데이터의 차이, 데이터 수집 기법의 차이인 것 처럼 여길 수 있으나 이 둘 사이에는 이어지는 보다 근원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입니다. 양적연구는 연구 가설을 규명할 때 연구하고자 하는 해당 현상의 맥락을 최대한 배제하는 데 주력합니다. 양적연구의 목표는 연구의 가설을 확률적 체계 속에서 일반적 경향으로 규명하는 것이기에 연구 가설이 여러 다른 맥락에서 동 일하게 반복될 확률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맥락을 최대한 배제하여 설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타맥락화 문제는 양적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어 왔는데, 브론멘브레너(Bronfenbrenner)가 "생태학적 타당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즉, 한 아이가 대학 실험실에 와서 보여 준 반응이 아이 삶의 터전인 집이나 학교에서 보이는 반응과 과연 같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요. 이에 비해 질적연구는 연구 현상을 둘러싼 맥락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질적연구는 어떤 현상이 항상 그것이 놓인 장과 맥락 안에서의 발생하는 '그' 현상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의 복잡성과 독특성을 오히려 최대한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이해에 다가서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일반화(generalization)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양적연구에서 연구의 결과를 다른 맥락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는 어찌 보면 연구의 궁극적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적연구에서는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다른 맥락에서 동일하게 반복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에 집중하여 연구를 설계합니다. 따라서 표집 당시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무선 표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물론, 무선 표집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 실제 무선 표집을 하는 연구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합니다.) 양적연구의 일반화는 '만일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이라는 일종의 실험실적 전제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지요. 이에 비해 질적연구는 연구하는 현상의 독특성과 그 맥락을 중시하며 어떤 존재가 다른 어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에 준거적 선택으로서 사례를 선정합니다. 질적 연구는 우리 삶에서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는 실험실적 전제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통계적 사실과 인간의 개별적 삶의 진실 간의 불일치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적연구는 본래적으로 일반화에 관심이 없는 접근입니다. 질적연구자가 자신이 연구한 참여자들의 삶이 다른 어느 곳에서 꼭 같이 반복되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그러니 질적연구자가 연구 말미에 본인 연구의 한계로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서 사례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고"를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일종의 자기부정입니다(그러니 이제 제발 연구의 한계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언급은 그만하시길. 적어도 그것이 질적연구라면!). 질적연구자는 일반화를 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독특함을 통해 삶의 진실이라는 보편성(universality)에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것으로서 질적연구자의 작업은 언제나 특수와 보편의 변증법적 작업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련된 이론 및 연구 가설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양 연구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기존 이론들을 보대로 연구 가설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양적연구의 정체성은 결국 연구 가설이 참임을 검증하는 데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양적연구의 논리는 먼저

연구자가 연구 가설을 수립하고 이에 반하는 대립 가설을 세운 후 이 대립 가설이 들릴 확률이 높음을, 그래서 연구 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연구 가설을 채택할 수 있느냐가 바로 p 값(유의도)인 셈이죠. 이렇게 양적연구는 먼저 이론이 있고 이를 기초로 가설을 수립한 후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이를 검증 한다는 맥락에서 연역적인 연구 논리를 취합니다. 이에 반해, 질적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가진 기존의 관점을 오히려 유보하는 것을 기본적인 태도로 합니다. 이는 모든 질적연구 전통들의 철학적 기반인 현상학에서 사태를 탐구함에 있어 판단을 유보하는 팔호치기, 즉 에포케가 기본 태도로 전제 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가 가설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은 잠정적입니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가설, 연구문제, 심지어는 연구의 주제까지도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만나고, 함께하면서 수정되거나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경험 자료를 중심으로 거기에 맞는 이론과 가설(추론 혹은 해석)들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질적연구는 연구에서 생성한 경험 자료에서 이론으로 나아 간다는 측면에서 귀납적인 연구 논리를 취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성 및 연구 참여자의 주체성 차이입니다. 양적연구에서 연구자는 객관적 측량자로서 자신의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참여자'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것으로서의 타자, 즉 '대상', '연구 대상(subject)'입니다. 연구 대상은 하나 하나가 독특성과 고유함을 지닌 구별해야 하는 개별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한 한 개의 표본입니다. 실제로 양적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때 기술 통계를 실시한 후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보이는 표본을 탈락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본들이 통계적 값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극단값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가 통용되는 것은 한 표본이 다른 표본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5 번 표본은 84 번 표본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것이지요. 이에 비해 질적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하고 독특한 한 인간으로 다른 어떤 아이디(5 번이나 84 번과 같이)로 감환될 수 없는 '연구 참여자(participant)'입니다. 질적연구에서 참여자는 조사를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구에 함께하는 참여자인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라는 용어는 질적 연구가 인간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존재들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인간학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적연구의 인식론이 담긴 중요한 개념입니다(그러니 제발 질적연구를 하면서 "연구 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질적연구는 연구자를 인식의 주체로, 주관을 지닌 사람으로 여깁니다. 질적연구에서 주관은 결코 부끄럽거나 평하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적연구자 는 그 어떤 기존 이론의 전제에도 기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향하여 자신의 주관으로 연구의 논리를 구축하고 답할 수 있는 '가장 엄밀한 학'으로서 질적연구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적 연구와 양적연구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인식

패러다임(인식론)의 차이입니다. 인식론의 차이란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말합니다. 진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란 결국 철학의 차이인데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는 각각 그 기반 철학이 다르고, 진리를 바라보는 이 관점의 차이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많은 차이를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양적연구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의 합리론, 근대적 실증주의, 구조주의라는 철학적 토대에 근거합니다.

양적연구에서 진리는 생각하는 주체의 의식(noesis) 밖에 실재하며 규명할 수 있는 실체적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진 리는 주체 밖에 실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점으로서의 진리, 정답으로서의 진리(truth)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객관적인'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객관이란 무엇인가요? 객관이란 손님의 눈을 말합니다. 즉 '객관'이란 '누가 보아도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양적연구에서는 최대한의 객관이 확보된, 그래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는 연구 설계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고에는 바로 주체 밖에 존재하는 실체적 대상으로서의 진리라는 인식론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질적연구는 진리가 주체 밖에 주체와 상관없이 분리되어 있는 실재가 아니라 인식 주체인 노에시스와 인식 대상인 노에마의 상관 작용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질적연구자는 단 하나의 일점 • 정답으로서의 진리(truth)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진리다움 (truthfulness)을 추구하는 것입니다(Cadamer, 1960/2000).

질적연구자는 단 하나의 사실(fact)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성(facticity)을 추구하며 무엇이 더 진리다운가, 진실스러운가를 찾는 것이지요. 이러한 질적연구는 현상학,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기반합니다.

질문 2

질적연구의 독특성은 무엇인가요?

가끔 어떤 질적연구자들의 연구물을 보면 연구라기보다는 마치 수도나 자기 수양 혹은 자기 교육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질적연구는 그냥 단순히 논문 한 편을 쓰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적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적연구란 어떤 독특성을 지니는 일인가요?

질적연구의 독특성은 무엇일까요? 질적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적연구의 독특성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할 수 있겠으나 저는 질적연구 독특성의 요체는 상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호성이라는 독 특함은 질적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몇 가지 주요 용어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호주관성, 상호텍스트성, 해석, 면담 등인데요. 이 주요 단어들의 영문 구조를 살펴보면 질적연구의 상호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용환(2019b)이 질적연구의 주요 개념어들을 'inter'라는 접두사와 접미사로 쪼개어 봄으로서 그 의미를 구성한 바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 아이디어를 빌어 질적연구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 개념어들을 숙고하는 것으로 질적연구 수행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질적연구는 상호존재적인 관심(inter-est)을 갖는 일입니다

interest(관심)라는 말은 inter 와 est 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여기서 "-est"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접미사로 관심은 존재와 존재 그 사이, 즉 상호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관심은 한 존재의 지향성이 어떤 다른 한 존재에게 기울어지는 현상으로, 질적연구는 결국 연구자가 참여자 혹은 자신이 마음을 두는 연구 현상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사실 연구자가 자신의 존재를 기울여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삼을 때 비로소 그 현상, 그 사람들(참여자)은 상호존재로서 우리에게 드디어 현현하게 됩니다. 연구 전반에 걸쳐 존재의 기울어짐이라는 관심과 지향성이 끈질기게 나타나야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질적연구는 관점과 관점 사이에서 면담(inter-view)하는 일입니다

'interview(면담)'라는 말은 'inter'와 View'로 이루어져 있 는데, 여기서 'View'는 시선과 관점을 뜻합니다. 면담은 시선과 시선이 관점과 관점이 만나는 일이므로 결국 한 사람의 세계와 한 사람의 세계가 만나 이뤄 내는 일이지요. 질적연구에서 면담은 연구자의 관점과 참여자 관점이 만나 역동함으로써 생성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면담이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연구 자)와 존재(참여자)가 만나 서로의 세계를 열어 보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쇼스타크(john Schostak)은 질적연구에서 면담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자신의 세계를 열어 밝히는 일종의 선물"(Schostak, 2006)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질적연구는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해석(inter-pret)하는 일입니다

'interpret(해석)'이라는 말은 'inter'와 'pret'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pret'는 서 있는 자리와 입장을 뜻합니다. 즉 해석이란 자리와 자리 그 사이, 입장과 입장 그 사이의 일이므로 inter-pret이란 상호자리, 상호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적연구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자리, 상호입장이 있습니다. 연구자와 참여자의 자리, 에릭과 에릭 사이(여기서 내부자 관점과 외부자 관점은 무엇인가?),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이 사례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무엇인가?), 텍스트와 독자 사이(이 글은 독자와 어떻게 공명할 수 있는가?)등이지요. 질적연구는 결국, 연구자가 탐구한 참여자들의 세계(특수의 세계)와 연구자가 속한 학문의 세계(보편의 세계)를 매개하는 일입니다. 질적연구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작업이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이근호, 2007)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적연구는 주관과 주관 사이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통한 일입니다

intersubjectivity(상호주관성)는 'inter'와 'subjectivity'의 합성어로 인간의 주관이란 언제나 주관과 주관, 주체와 주체, 주체와 타자 그 사이의 일임을 표현합니다. 질적연구에서 주관은 이미 항상 간주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관은 우리 현존재(인간)의 주관이 홀로 오롯한 자기만의 주관이 아니라 항상 타인과의 상관 작용 속에서 즉, 주관과 주관 사이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질적연구는 연구자-참여자, 연구자-연구자, 연구자-독자, 참여자-참여자의 주관과 주관이 상호적으로 얽혀 있는 간주관의 작업입니다. 따라서 질적연구자는 질적연구를 비판할 때 공식처럼 등장하는 "질적연구는 주관적이다"라는 수사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은 과학적인 것이고 주관은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각 용어의 원래 뜻만 생각해 보아도 매우 곡해된 접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은 손님의 눈으로 본다는 뜻이며, 주관은 주체의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질적연구에서 주관은 이미 항상 간주관임을 생각할 때, 주관은 결코 개인적(personal)인 것이 아닙니다.

질적연구는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질적연구의 텍스트는 연구자가 구성할 수 있는 텍스트와 텍스트 그 사이, 연구자의 쓰기와 독자의 읽기 그 사이에서 고성되는 상호텍스트의 성격을 지닙니다. 질적연구는 고정 불변한 실체적 진리로서의 연구 결과를 지향하지 않으므로, 질적연구 결과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텍스트들 중 하나로서 구성된 것입니다(van Manen, 2014). 같은 자료로 한 연구자가 서로 다른 텍스트를 구성하는 일이나, 같은 자료로 서로 다른 연구자가 서로 다른 텍스트를 구성하는 일은 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거듭 '정확히' 잘 분석하면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러한 질적연구의 상호텍스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매우 실증적인 관점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적연구자는 글쓰기에서 언제나 열린 태도를 지향하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확정적 • 단언적 언어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연구 결과를 명확판명한 진리(정답)으로 여기게 되면 텍스트는 점점 무거워지고 설득적인 것이 되어 갈 것입니다. 질적연구의 텍스트는 설득이나 강요가 아니라 논문을 통해 독자를

대화의 장으로 초청하는 것이며, 설명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적연구 글쓰기에서 '말하지 말고 보여 주라(Don't tell but just show)"(조용환, 2011)는 아포리즘은 질적연구의 상호텍스트성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질문 3

질적연구에서 심층면담이란 어떻게 가능한가요?

최근 많은 질적연구들이 자료 수집에서 '심층면담'을 했다고 기술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는 여러 명의 참여자를 한 번 면담한 경우에도 '심층면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적연구에서 면담과 심층면담을 같은 것으로 보아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심층면담이 가능할까요? 질적연구에서 심층면담이란 어떤 의미를 지닌 일인가요?

질적연구 현장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 많은 대화들이 생성됩니다. 일상적인 대화뿐 아니라 연구 진행과 관련된 협의 사항에 대한 대화, 본격적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대화들도 이루어지지요. 이 중 질적연구에서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연구 주제에 관련해서 일정한 목적을 갖고 나누는 대화를 일컫습니다. 질적연구에서 면담은 질문의 구조성 측면에서 구조적 면담, 반구조적 면담, 비구조적 면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의 심층성을 확보한 면담을 '심층면담(in -depth interview)'이라고 일컫고, 면담 시 연구자가 중간자적 입장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입장을 취하는(take a stance) 면담을 '공감적 면담'이라고 부릅니다(조용환, 2019b). 따라서 당연히도, 심층면담은 면담과 꼭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성을 확보한 면담을 일컫습니다(전가일, 2013; 조용환, 2016c). 질적연구에서의 모든 면담을 '심층면담'으로 부르는 것은 일종의 습관화된 명명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은 심층성을 확보한 면담을 지칭합니다. 질적연구에서 심층면담이란 연구자가 참여자와 함께 질문의 내용과 형식을 정하지 않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연구 주제에 대해 지속적인 열린 대화를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한 의미의 심층적 차원까지 이르게 되는 대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질적연구에서 진행된 면담이 심층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심층면담'이라고 하지 말고 '면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면담을 했다고 해서 질적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면담'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을 '심층면담'이라고 과장하거나 습관적으로 오용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참여자와의 면담이 일회성 그친 연구에서 서슴지 않고 '심층면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독자로서 그 연구의 타당함을 경계하게 됩니다. 낯모르던 참여자를 한두 번 만나서 면담을 실시했을 때, 연구 주제에 대한 의미의 심층에 이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적연구에서 '의미의 심층적 차원에 이르는 심층면담'이 가능한 것일까요? 모든 사례에 맞는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쇼스 타이 『질적연구에서 인터뷰하기와 재현(Interviewing and representation in qualitative research)』에 기술한 것을 통해 질적연구에서 면담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질적연구에서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 세계의 만남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면담은 'inter+View'의 의미를 지니는 일로,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점과 관점 그리고 세계와 세계 사이의 작업입니다. 따라서 심층면담에서 연구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특정 정보를 캐내려고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열린 태도와 마음으로 묻고 답하는 해석적인 대화(interview as hermeneutic dialogue)로서의 인터뷰를 지향합니다. 참여자의 세계 속으로 들어 가는 것, 그래서 중국에는 참여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질적연구에서 면담이라는 일의 궁극적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질적연구에서 연구 문제 풀이의 핵심일 것입니다. 질적연구에서 면담은 타자의 타자성을 재인식하는 것이며, 동일성으로 환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강력한 전제나 연구 가설을 가지고 있다면 면담 과정에서 타자성에 대한 인정 대신 타자를 자신의 동일성으로 환원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타자가 나와 같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애초에 '연구'라는 일을 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참여자를 연구자의 동일성을 환원하지 않고, 타자의 타자성을 재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심층면담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질적연구에서 면담은 참여자와 연구자가 서로의 질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기 안에 타자를 향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나의 존재의 열림은 그야말로 신비와 같은 것이지요. 쇼스타크는 면담에서 일어나는 타인을 향한 존재의 열림을 일종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것 없이는 대화적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Schostak, 2006). 우리는 '존재의 열림'을 생각할 때 연구자를 향한 참여자의 열림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는 상호적인 것으로 참여자를 향한 연구자의 존재의 열림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는 열어 밝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내가 들어갈 공간을 열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질적연구에서 면담이 심화될수록 오히려 참여자만큼이나 연구자가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질적연구에서 면담은 주체와 타자 간의 상호적 인식과 재인식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 즉, 존재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작업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의미화하는 일은 진공 상태에서 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질적연구에서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만나 대화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는 자기 자신을 인식, 재인식하며 서로의 존재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면담에서 상호성의 결여는 타자를 대상으로 고정시키고, 조작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질적연구자가 참여자를 대상화하면 참여자는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연구 참여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언제든지 다른 이로 대체될 수 있는, 상호성이 결여된 대화는 그 만남의

독특함이 아니라 정보의 정확함이 중심이 됩니다. 즉, 상호성이 결여되어 언제든지 다른 이로 대체 가능한 대화는 앞서 이야기한 심층면담과 같이 두 세계의 만남이나 타자성에 대한 인식, 존재의 열어 밝힘, 존재의 인식과 재인식 같은 일이 아니라 정보를 주고 받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